

할 것 다 하면서도 함이 없이 하고 살아야

29면에서 계속

고 여기 있습니다. 마음내 주십시오.

답 마음을 제삼자에게 내 달라고 하기 이전에 '내 마음을 내면 다 통한다.' 이런 걸 좀 알아야 돼요. 즉 말하자면 남한테 마음을 내 달라고 하기 이전에 내 마음을 내면 더불어 같이 내진다는 말이예요.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하지 마라.' 이런 것도 아니고 '생각을 내지 마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시험을 보는데 어떻게 그것을 이것저것 다 버리고 편안하게 하겠습니까, 편안치 못하든 편안하든 다 버리는 겁니다. 놓는 겁니다. 이 몸뚱이가 고정됨이 없이 바로 화해서 나투면 잘 나잘나 나투는 까닭에 공했던 말입니다. 어떤 거를 할 때에 내가 했고 어떤 거를 할 때에 내가 안 했고 이게 없다 이 소리죠. 그런 까닭에 주인공 자 불이 나의 모든 기능을 합해서 시험을 보는 거니까 '너만이 이끌어 줄 수 있잖아. 합격되게 할 수 있는 것도 너뿐이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한해서는 자기 보배를 자기가 응용 못하고 바깥으로 끄달리면서 자꾸 내가 무엇이 모자라는데, 내가 무엇이 모자라기 때문에 누구한테 무엇을 물어봐야 하고, 책을 찾아 봐야 하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 모두를 볼 때엔 모두 자기 할 뜻이죠. 아주 간략하게 말해서요. 모든 게 자기 할 뜻이다. 자기가 하는 대로 살도, 약도 선도 다 살고 있다. 자기가 할 뜻이다 이거죠. 자기가 한 대로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자기네들이 한 뜻으로 이렇게 되니까 너희들이 좀 벗어나서 살아라 하고 일러 주신 거죠.

예를 들어서 많이 왜 사람으로 부화를 못하느냐. 닭으로 살던 습이 머리에 쟁여져서 닭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닭의 습성이 있어서요. 돼지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소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 살던 습성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그 습성을 다 거쳐 올라온 사람들입니다. 올라와서 사람까지 이르렀는데 사람도 천차만별로 차원이 있으니 이것을 어찌하느냐 이런 소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생각해서 될 것도 아니고 '한생각을 잘하라' 이런 뜻입니다. 생각하고 논의하고 그래서 될 일 아니고 한생각, 보는 순간 듣는 순간 한생각 잡하면 그게 밥이 된다 이거예요. 밥이 되면 한 발짝 떼 놓지 않고도 가만히 그 보살 응신들이 다 해결을 해요. 우리가 지금 한 발짝 떼어 놓지도 않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본래 한 발짝 떼어 놓은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직결돼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한 발짝도 떼어 놓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별나게 사는 걸로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참나참나 화해서 나투고 끝없이 돌아가는 이 진리를 파악한다면 우리가 할 거 다 하면서도 함이 없이 한 것이 되죠. 내가 항상 말하죠. 여기 올라올 때 한 발 떼어 놓으면 한 발 없어지고 한

발 떼어 놓으면 한 발 없어진다고요. 우리 생활이 그런 생활이거든요. 그러니 그 발자국 떼어 놓는 동안에 어떠한 발자국을 떼어 놔다고 말하겠습니까? 어떤 발은 떼어 놓을 때 내가 했고 어떤 발은 떼어 놓을 때 내가 안 했습니까? 떼어 놓은 대로 없어지는 것예요. 참나에도, 지금 내가 말을 하면서도 과거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기 이전에 미래도, 바로 미래와 과거 교차로에서 우리가 하기에 달렸단, 마음먹기에 달렸단, 마음을 먹어도 한마음을 먹기에 달렸단 이겁니다.

내 몸속에도 생명들이 많으니까 한 개체를 더불어 한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다 알아야 할 일이고 진리를 파악해야 할 일이고 진리 속에서, 악과 선 그 가운데서 내가 악에는 어떤하고 선에는 어떤해야 하는지 그 도리를 말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무의 세계에서 응원으로 모든 것을 해야 하는 거죠. 즉 말하자면 '공법'이라고 해도 되고 '용무'라고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함이 없이 할 수 있는 도리가 있

도유회가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육도유회에 매이지 마라. 끄달리지 마라." 하고 가르침을 주신 거죠. '풀어라' 그러신 게 아니라 '매이지 마라. 보는 것도 듣는 것도 고정됨이 없어서 발 하나 하나 떼어 놓는 것도 바로 유회거든요. 어찌 한 발짝 떼어 놓고 또 한 발짝 떼어 놓는다고 해서 거기에 치우쳐서 끄달리고 매이느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다 고정됨이 없기 때문에 유회에 매이지 마라.' 하신 겁니다.

내가 지금도 얘기를 하다 올라왔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아까 차를 한 잔 주는데 뜨거웠어요. 여기 올라오긴 해야겠고 이것을 빨리 식으라고 저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찬 것도 아니다." 즉 '네가, 차를 끓이는 데워 먹고 뜨겁걸랑은 식혀 먹어라. 이게 진법(眞法)이다.' 이런 것과 같이 우리가 항상 육도만행을 하면서 육도유회를 합니다.

그러나 유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생사에 의

편안치 못하든 편안하든 다

버리는 겁니다! 놓는 겁니다!

다면 어떠한 거든지 손색이 없을 겁니다. 정말입니다. 실전을 항상 해 보십시오. 자기가 실천해가지 않으면 부처님이 있고 일체제불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대신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실천을 해서 감응이 되고 감응이 되면 한생각 해 보시고 '아, 이렇게 가는 거로구나.' 하고 또 상대를 만나보면 내가 자원이 얼마나 됐는지도 알게 됩니다.

유회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문 인간이 유회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유회를 하는 걸 본 사람도 없고, 그걸 기억하는 사람도 없고, 정말 막연히 그럴 거라는 추측이 아닐는지요? 부처님께서도 그걸 겪어 보지 못하고 한 생 동안 살면서 전생이 있고 내생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었던 건지요? 그리고 자유인이 되어 유회를 벗어나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요?

답 평상시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이 만행(萬行)입니다. 그대로 만행입니다. 만행이 따로 있어서 만행이 아니라, 그대로 만행입니다. 끝없이 이어 가는 그 행이, 고정됨이 없이 행하는 그 생활이 즉 만행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와서 만행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육도만행(六道萬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만행이 있기 때문에 육도유회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육

해서만이 유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나 참나 돌아가는 것이 유회입니다. 화(化)해서 나투면서 참나참나 변화되면서 돌아가는 이 만행이 즉, 유회입니다. 유회인 까닭에 그 유회에 매이지 말라고 한 겁니다. 재차 얘기하지만, '매이지 마라. 끄달리지 마라. 그대로 볼 수 있고 그대로 들을 수 있다면 그대로 여여하나라, 그대로 점프해서 넘어 가느니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육도유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생활하면서 고정됨이 없이 공(空)했다고 하는 자체가 바로 그것이니 매이지 말고 끄달리지 마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다 공했습니다. 너를 세울 것도 없고 나를 세울 것도 없고, 나를 꼬집어서 내세워서 나라고 할 게 없습니다. 안과 밖이 다 그러합니다. 안에도 내 집안의 모든 생명체의 의식들인 내가, 그러니까 사람 속엔 사람이 들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 둘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것을 꼬집어서 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공하고 없다고 하는 겁니다. 내세울 게 없다. 없다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 어떤 걸 세울 게 없다는 거죠. 세울 게 없는데 무엇이 매이고 무엇이 끄달릴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본의 도리에서 보면 유회라는 이름조차도 없는 것인데 살면서 모두 그 이름을 지어 놓지 않는다면 질서가 문란하고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름을 지어 놓고 부르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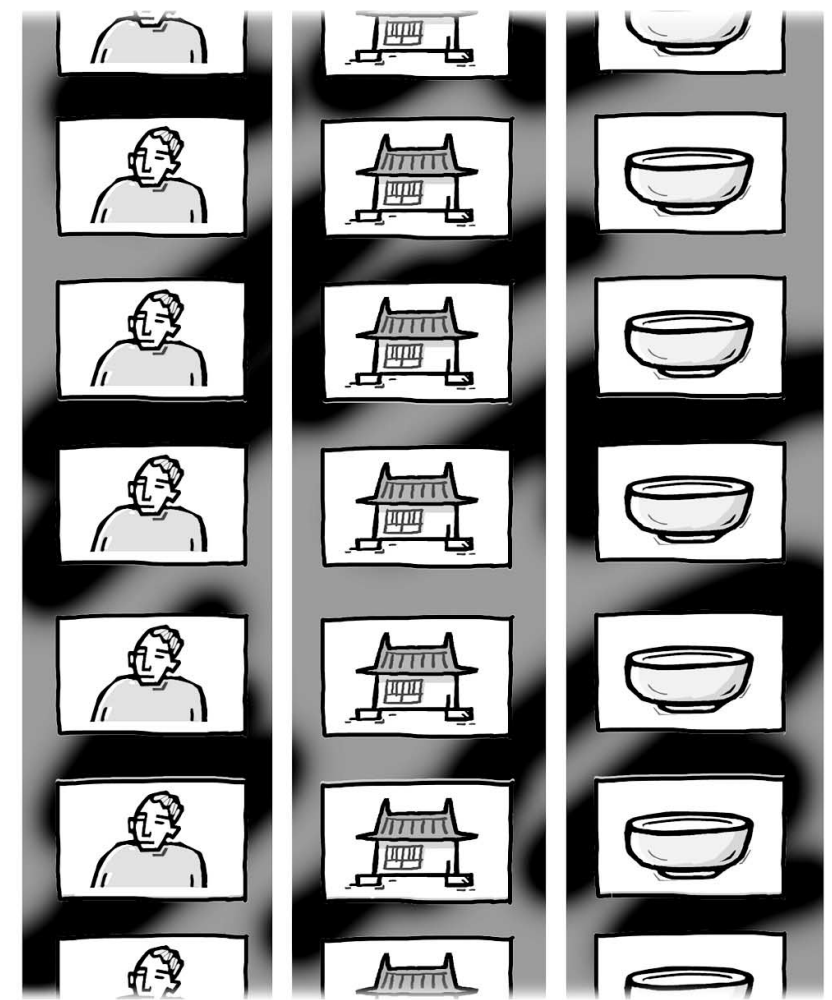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1천원으로 부처님 말씀 전하세요”

최상의 보시인 법보시 공덕을 지으세요

- 참여방법
 - 현대불교 매월 '법보시 후원금' 1구좌 1,000원 이상
 - 현대불교신문 보내는 곳 : 군부대, 교도소, 경찰서, 병원법당, 복지시설 등
-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06-01-0783-830 / 농협 053-01-236053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자동이체로 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자동이체 신청은 전화 한통화로 해결됩니다.

● 문의: 현대불교신문사 고객부 (02)2004-8211, 8212 팩스(02)737-0697

「마음의 거울을 꺼내어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

“살며 생각하며”

시가 있고 음악이 있고 진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슴 뭉클한 감동이 있습니다.

매일 밤 11시에서 새벽 1시까지 감사인 시인과 함께 마스함을 느껴보시죠.

나와 내 이웃들의 삶이 보이는 창 <살며 생각하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www.bsfm.co.kr 서울 FM 101.9 Mhz

BBS 불교방송